

보 도 자 료

「2026 박물관·미술관 주간」 뮤지엄 x 만나다 ‘전국 50개 박물관·미술관이 전하는 ‘최초의 이야기’

다채로운 전시·교육·체험으로 펼쳐지는 미래·별자리·벽화... ‘최초’의 이야기는 6월에도 계속된다.

(사)한국박물관협회(회장 조한희)가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와 함께 추진 중인 「2026 박물관·미술관 주간」은 ▲뮤지엄×즐기다 ▲뮤지엄×거닐다 ▲뮤지엄×만나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곳곳에서 다채로운 문화 경험을 선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대표 프로그램 〈뮤지엄×만나다〉는 전국 50개 박물관·미술관이 참여해 각 기관의 대표 소장품과 그에 담긴 이야기를 새롭게 조명하며 관람객들의 호응 속에 운영되고 있다. 특히 〈뮤지엄×만나다〉참여관의 소장품 전시는 6월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어, 5월 중 방문이 어려웠던 관람객들도 보다 여유롭게 전국 박물관·미술관의 특색 있는 소장품과 그에 담긴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

〈뮤지엄×만나다〉는 전국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가운데 ‘최초’의 의미를 담은 대표 소장품 50점을 선정해,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와 문화적 가치를 관람객과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주제는 ‘최초, 그리고 시작’으로, 처음 사용된 기술, 최초로 기록된 순간, 새로운 문화의 흐름을 만들어낸 창작물 등 오늘날 우리 문화의 뿌리이자 출발점이 된 소장품들을 집중 조명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국 50개 참여 기관은 각 소장품을 중심으로 교육·체험·특별 전시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하며, 단순한 유물 감상을 넘어 소장품에 담긴 역사적·과학적·문화적 이야기를 관람객이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발견하고 그 속에 숨겨진 문화의 깊이를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함안박물관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말미산고분군 13호분에서 출토된 〈별자리 덮개돌〉을 대표 소장품으로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5세기 후반 아라가야 최전성기 무덤의 석실 천장을 덮었던 이 판석에는 총 191개의 성혈(性穴)이 새겨져 있으며, 한반도 남부에서 확인된 유일한 고대 별자리 유물로 아라가야의 높은 천문·과학 지식을 실증한다. 가야 고분에서 별자리 표현이 확인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크며, 당시 아라가야인들의 천문 사상과 동아시아 천문 문화의 교류 양상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이 유물만을 위한 ‘별 헤는 방’을 조성하여 별자리 형상을 화면으로 구현한 몰입형 연출을 선보이고 있다.

함안박물관 김혜민 학예연구사는 “‘별 헤는 방’을 조성하면서 단순히 유물을 보여주는 공간을 넘어, 관람객 한 분 한 분이 조용히 덮개돌에 새겨진 별자리를 바라보며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라가야 사람들이 1,500년 전 바라보았던 별과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별은 결국 같은 하늘 아래 이어져 있다”며, “‘별 헤는 방’이 과거의 하늘과 현재의 하늘,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공간으로 기억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은 장욱진 화백이 덕소 화실 벽면에 직접 그린 〈동물가족〉을 대표 소장품으로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소·닭·돼지·개가 가족처럼 모여 있는 이 벽화는 장욱진 특유의 순수하고 소박한 감성을 잘 보여주며, 철거 예정이던 덕소 화실의 벽에서 떼어내 보존했다는 사실이 작품에 각별한 의미를 더한다. 단순하고 평온한 동물들의 모습 속에는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따뜻한 관계가 담겨 있으며, 홀로 그려진 개의 형상에서는 가족과 떨어져 작업에 몰두하던 작가의 고독과 내면이 느껴진다. 실제 소코뚜레와 워낭이 작품과 함께 전시되어 당시의 생활 정서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점도 이 작품만의 독특한 매력이다.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김명훈 학예사는 “〈동물가족〉은 예술과 일상이 함께했던 장욱진 화백의 삶의 태도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말했다. 이어 “덕소 화실 벽면에서 옮겨져 온 이 작품에는 화백의 생활과 작업의 흔적이 함께 담겨 있으며, 소박한 동물들의 모습은 평범한 일상 속 따뜻한 정서를 전해준다”고 소개하며, “관람객들이 작품을 통해 한 시대의 삶과 기억에 공감하고, 가까이 있었지만 쉽게 지나쳤던 가족과 일상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 느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자연사박물관은 2023년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지정된 〈학봉장군미라〉를 대표 소장품으로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의 기후 특성상 자연미라 형성이 매우 드문 가운데, 이 유물은 '국내 최고(最古)의 미라'라는 상징성을 지닌다. 약 600년 전 조선 초기(1400년대) 무관으로 추정되는 이 미라는 독특한 회곽묘 구조와 이중목관을 통해 당대의 엄격한 장례문화와 유교적 질서를 생생하게 고증한다. 미라와 함께 수습된 약 40여 점의 출토복식은 조선 전기 복식사 연구의 결정적 기준을 제시하며, 한국 자연미라의 형성 메커니즘을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과학적 가치가 매우 높다.

한국자연사박물관 송안나 학예팀장은 “단순한 유물 관람을 넘어 관람객이 직접 '600년을 걷는 시간 여행자'가 되는 역동적인 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미라에 얽힌 비밀을 풀기 위해 박물관 곳곳의 단서를 추적하고 스탬프를 획득하는 미션 수행형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들이 역사와 과학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꼬마 인류학자'가 될 것”이라고 소개하며, “자연과학과 인문학을 아우르는 융합적 사고를 기르고, 박물관이 살아있는 탐험과 기록의 공간임을 직접 체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행사 내용 및 프로그램 일정은 박물관·미술관 주간 공식 누리집(www.뮤지엄위크.kr)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별자리 덮개돌〉
별 헤는 방
©함안박물관



〈동물가족〉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학봉장군미라〉
©한국자연사박물관

□ **사업 개요**

- (사업명) 「2026 박물관·미술관 주간」
- (주간기간) 2026. 5. 1.(금) ~ 5. 31.(일), 31일간
 - (개막식) 2026. 5. 4.(월) 14:00(예정), 모란미술관
 - (세부프로그램 운영) 주간 기간 포함 최대 3개월 내외
-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ICOM KOREA)
- (주관) (사)한국박물관협회
- (주제) ‘분열된 세상을 하나로 잇는 박물관’ (Museums Uniting a divided world)
- (추진 목적)
 - 주간 내 전국 단위의 다양한 행사 운영을 통해, 국민 생활 속 박물관·미술관 인식 확산 및 문화의 일상화 실현
 - 박물관·미술관 정체성에 기반한 참신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권 제고 및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도모
 - 박물관·미술관의 지역 정체성을 확립, 지역 문화 거점으로서의 위상 강화
- (추진 방향)
 - (2026년 ICOM 주제 연계) ICOM 주제인 ‘분열된 세상을 하나로 잇는 박물관(Museums uniting a divided world)’ 를 반영하여 전 세계적 박물관 트렌드와 보조를 맞춘 시의적절한 주제로 운영
 - (함께 누리는 문화, 문화로 매력있는 지역) 지역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기획 및 운영
 - (지역 정체성 제고) 각 박물관·미술관을 거점으로 지역 내 다양한 콘텐츠를 연계·활용한 콘텐츠 개발하여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
 - (특화 콘텐츠)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한 각 박물관·미술관의 특성(소장품, 특화전시, 지역성 등)을 반영한 특화 콘텐츠 및 실험적인 신규 콘텐츠 개발
- (주요 프로그램)
 - (「뮤지엄×즐기다」, 18개관 16개 프로그램)
 - (「뮤지엄×거닐다」, 4개 지역 12회차)
 - (「뮤지엄×만나다」, 50개관 50개 소장품)

<주요 실적('23~'25년)>

구 분	'23년	'24년	'25년
참여관 수	298개관	335개관	361개관
향유자 수	1,018,264명	857,676명	1,330,261명

「뮤지엄×만나다」 (50개 기관, 50개 소장품)

전국 50개기관 체험프로그램... 소장품에 담긴 이야기를 만나다.

뮤지엄×만나는 박물관·미술관이 소장한 우수한 문화유산과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통해 문화적 가치를 만나는 프로그램이다.

‘뮤지엄×만나다’는 ‘최초, 그리고 시작’을 주제로 전국 박물관·미술관이 소장한 유물과 작품 속 이야기를 새롭게 조명하는 프로그램이다. 각 소장품에 담긴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의미를 발굴해 대중의 언어로 전달함으로써 문화 자산의 가치를 확산하고, 박물관·미술관을 삶 속의 문화 공간으로 재인식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공모를 통해 전국 50개 기관의 대표 소장품 50건을 선정하였으며, 올해는 이를 중심으로 강연·체험·스토리 전시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물과 작품의 이면에 숨겨진 역사적 서사와 사회적 맥락을 관람객이 능동적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소장품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더욱 공감 문화 체험을 선사한다.

	지역	기관명	소장품명
1	경기 (용인시)	경기도박물관	조영복 초상
2	경기 (광주시)	경기도자박물관	108번뇌
3	경북 (경주시)	경주세계자동차박물관	포니1
4	경기 (양평군)	구하우스 미술관	전람회의 그림들
5	제주 (제주시)	김만덕기념관	은광연세 편액(恩光衍世 扁額)
6	경기 (김포시)	김포다도박물관	휴대용 다기함
7	경기 (용인시)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열하일기 필초고본 (熱河日記 親筆草稿本)
8	전남 (담양군)	담양우표박물관	우리나라 최초우표(문위우표)
9	경북 (경산시)	대구대학교 중앙박물관	로제타 흙 한글점자 교재
10	대구 (동구)	대구섬유박물관	낙하산지 블라우스
11	부산 (서구)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김윤겸 필 영남기행화첩 (金允謙 筆 嶺南紀行畫帖)
12	경기 (성남시)	디자인코리아뮤지엄	박가분(朴家粉)
13	경기 (남양주시)	모란미술관	발자크 기념상

14	서울 (강북구)	박을복자수박물관	국화와 원앙
15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의학박물관	꽃무늬 꽃엔진
16	서울 (성북구)	성북구립미술관	이브 58-1
17	경기 (파주시)	세계민속악기박물관	루밥
18	경기 (안산시)	안산어촌민속박물관	목어
19	경기 (광주시)	영은미술관	하늘과 땅
20	경북 (영천시)	영천역사박물관	세계최초일간신문 『민간인쇄조보』
21	인천 (남동구)	영훈뮤지엄	해주백자청화추상문단지
22	경기 (이천시)	이천시립박물관	청자양각연판문접시 (靑磁陽刻連瓣文楨匙)
23	경기 (이천시)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수고무강첩(壽考無疆帖)
24	경기 (양평군)	이함미술관	뷔페, 노바디즈 퍼펙트
25	전북 (전주시)	전주전통술박물관	양주○법(釀酒○法)
26	충북 (음성군)	철박물관	전기로 556
27	충북 (청주시)	청주시한국공예관	안계(眼界)
28	서울 (종로구)	춘원당한의학박물관	제1회 한의사국가시험 합격증
29	경기 (광명시)	충현박물관	광명 번역 징비록 (光明 翻譯 懲毖錄)
30	경기 (남양주시)	프라움악기박물관	브로드우드 그랜드 포르테 피아노
31	경기 (용인시)	한국등잔박물관	조족등
32	전남 (강진군)	한국민화뮤지엄	삼국지연의도(三國志演義圖)
33	충남 (공주시)	한국자연사박물관	학봉장군미라
34	경기 (파주시)	한길책박물관	초서 저작집
35	대전 (대덕구)	한남대학교 중앙박물관	평양성탈환도(平壤城奪還圖)
36	충북 (음성군)	한독의약박물관	대한약전 초판본
37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박물관	아날로그 전자계산기 3호기
38	서울 (성북구)	해곡최순우기념관	최순우 옛집
39	경북 (경산시)	경산시립박물관	얼굴모양토기

40	전남 (강진군)	고려청자박물관	청자 ‘大平’ 명양각해석류화문와
41	강원 (속초시)	국립산악박물관	'77 한국 에베레스트 자료
42	전남 (고흥군)	국립소록도 한센병박물관	청진기
43	부산 (영도구)	국립해양박물관	바다의 신비
44	서울 (중구)	농협 농업박물관	강진 용소농기
45	대전 (유성구)	대전시립박물관	나신걸 한글편지
46	서울 (종로구)	목인박물관 목석원	남사당패
47	부산 (동래구)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큰이빨부리고래 골격 표본
48	경기 (양주시)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동물가족
49	경기 (양주시)	양주회암사지박물관	영락장식
50	경남 (함안군)	함안박물관	별자리 덮개돌(천문개석)

□ 함안박물관 소장품 <별자리 덮개돌(천문개석)>

- 박물관 소개 : 함안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올바르게 알리기 위해 건립된 ‘함안박물관’은 함안군에서 운영하는 공립박물관입니다. 제1전시관은 함안의 지질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 제2전시관은 고려시대부터 근현대 시기까지 다양한 주제의 전시가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말리산고분군 출토 유물을 전시하고 있으며, 아라가야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별자리 덮개돌(천문개석), 석제품 안산암제, 80x240x35cm, 가야시대(5세기), ©함안박물관

<별자리 덮개돌> 별 헤는 방 ©함안박물관

함안 말리산고분군은 1,500년 전 축조된 아라가야 왕급 무덤군으로, 소멸된 가야 문명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물이자 역사의 중요한 단계를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로 2023년 9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함안 말리산 13호분은 일제강점기인 1918년 야쓰이 세이이쓰(谷正濟一)에 의해 도굴식의 발굴이 있었고, 정식 보고되지 않은 채 사진과 도면 몇 장만 남았으며, 1980년대 정비·복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수차례 도굴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1918년에는 무덤 덮개돌 안쪽에 새겨진 별자리가 보고되지 않았고, 2018년 말이산 13호분 2차 발굴조사 당시 별자리가 새겨진 덮개돌이 발견되었습니다. 함안박물관 소장 '별자리 덮개돌'은 5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아라가야 최고 지배층의 무덤인 말이산 13호분의 무덤 덮개돌로, 별자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장방형에 가까운 형태로 측면을 제외한 상하면은 상당히 정연하게 마연하였으며, 성혈(性穴)은 덮개돌의 밑 부분에만 새겨져 있습니다.

새겨진 성혈은 모두 191개소이며, 대부분은 평면 원형에 가깝고 일부는 타원형을 띠는 것도 확인됩니다. 고천문학자와의 공동 분석 결과 별자리로 판명되었습니다. 이 별자리 덮개돌은 별의 크기를 명확히 구분하는 한반도 별자리 그림의 고유한 특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별자리 덮개돌'에 새겨진 청룡별자리와 남두육성, 은하수를 표현한 별자리들은 한반도 여름의 남쪽 하늘에서 관찰되는 것으로, 13호분 주인공이 죽은 시점을 나타내었을 가능성, 혹은 여름(태양)이 상징하는 바를 주인공의 무덤에 우회적으로 표현하였을 가능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의 여지를 남깁니다. 함안박물관 소장 말이산 13호분 출토 '별자리 덮개돌'은 가야 무덤에서 '최초'로 확인된 사례입니다. 삼국시대 무덤에서 별자리 그림이 확인된 예는 말이산 13호분의 별자리 덮개돌이 유일합니다. 이 자료를 통해 삼국시대 중국, 일본과의 천문 교류를 파악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입니다.

Q1. '만나다' 프로그램에서 말이산 13호분의 <별자리 덮개돌>을 선정하신 이유와, 이 유물이 가진 역사적 의미를 소개해 주세요.

함안 말이산고분군은 약 1,500년 전 축조된 아라가야 지배층의 무덤군으로, 이미 소멸한 가야 문명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입니다. 이러한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2023년 9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함안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말이산 13호분 출토 '별자리 덮개돌'은 5세기 후반 조성된 아라가야 최고 지배층 무덤의 덮개돌로, 표면에 별자리가 새겨져 있는 매우 특별한 유물입니다. 특히 가야 고분에서 별자리 표현이 확인된 사례로는 최초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이 유물은 당시 아라가야인들의 천문 사상을 보여줄 뿐 아니라, 동아시아 천문 문화의 교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Q2. 191개의 성혈로 표현된 별자리 가운데 관람객들이 특히 주목해보면 좋을 부분이나 흥미로운 관람 포인트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별자리 덮개돌'에서 모두 191개의 흠이 확인되었습니다. 대부분은 원형에 가깝고 일부는 타원형을 띠고 있는데, 고천문학자와의 공동 분석을 통해 실제 별자리를 표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관람객들이 특히 흥미롭게 보실 부분은 별의 밝기에 따라 흠의 크기를 다르게 표현한 점입니다. 이는 별의 밝기를 구분해 나타내는 한반도 고대 별자리 표현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또한 덮개돌에는 남두육성(공수자리)과 청룡별자리(전갈자리) 그리고 은하수까지 확인되는데, 이는 한반도의 여름철 남쪽 하늘에서 관찰되는 별자리들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13호분 주인공이 세상을 떠난 시기와 관련된 의미를 담고 있었으며, 여름이 상징하는 권위와 생명력을 무덤에 투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아라가야인들의 우주관과 삶·죽음에 대한 인식을 담아낸 상징적 표현이라는 점에서 더욱 흥미롭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Q3. 1,500년 전 아라가야 사람들이 바라본 하늘이 오늘날의 하늘과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가요?

2025년 12월 '별자리 덮개돌' 독립 전시 공간을 조성하며 전시 공간의 이름을 '별 헤는 방'이라고

지었습니다. 단순히 유물을 보여주는 공간을 넘어 관람객 한 사람 한 사람이 조용히 ‘덧개돌’에 내려앉은 별자리들을 바라보며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아라가야 사람들이 1,500년 전 바라보았던 별과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별은 결국 같은 하늘 아래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별자리 덧개돌’ 독립 전시 공간을 통해 관람객 여러분이 잠시 일상의 속도를 늦추고, 오래전 아라가야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별을 바라보는 경험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문화유산은 단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유물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 감정과 생각까지 이어주는 살아있는 이야기라는 점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별 헤는 밤’이 과거의 하늘과 현재의 하늘,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공간으로 기억되기를 기대합니다.

함안박물관 김혜민 학예연구사

□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소장품 <동물가족>

- 미술관 소개 : 한국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장욱진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며, 한국현대미술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미술작품과 자료를 전시, 연구,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좌) 장욱진, 동물가족, 회벽에 유채, 209x130cm, 1964,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우) <동물가족>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동물가족>은 경기도 덕소 화실 벽에 그려진 것으로 벽 자체를 떼어내 미술관에 기증, 영구 전시된 작품입니다. 소와 닭, 돼지, 개의 식구들이 한 가족처럼 화목하게 그려진 작품에서 동물에 대한 화가의 따뜻한 시선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벽화 위에 걸어놓은 실물의 쇠꼬뚜레와 위낭은 동물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향토적인 정서를 담고 있습니다. 해당 소장품은 소재, 재료, 크기 등에서 장욱진의 그림 세계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으며, 오랫동안 벽체로 보관되어 오다 복원작업을 거쳐 현재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에 영구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 당시 무게만 1.5톤에 달해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도 설치하는 데 애를 먹었다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Q1. 이번 ‘만나다’ 프로그램에서 장욱진 화백의 <동물가족>을 선정하신 이유와, 작품이 가진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인가요?

<동물가족>은 내용과 형식의 독창성뿐 아니라 보존되어 온 과정 또한 특별한 작품입니다. 가족처럼

모여 있는 동물들의 따뜻하고 소박한 모습은 장욱진 특유의 순수한 감성을 잘 보여주며, 철거 예정이던 덕소 화실의 벽에서 작품을 떼어내 보존했다는 이야기는 작품에 의미를 더해줍니다. 특히 실제 소코뚜레와 위낭이 함께 어우러진 점은 이 작품만의 독특한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2. 〈동물가족〉 속 동물들의 모습과 화실 벽화라는 형식에서 관람객들이 주목해보면 좋을 부분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작품 속 동물들은 단순하고 소박한 형태로 표현되었지만,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따뜻한 관계와 평온한 분위기를 전해줍니다. 반면 홀로 그려진 개의 모습에서는 가족과 떨어져 작업에 몰두하던 작가의 고독과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작품이 실제 덕소 화실 벽면에 그려진 벽화라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예술과 일상이 함께했던 장욱진 화백의 삶의 태도를 엿볼 수 있으며, 실제 소코뚜레와 위낭이 어우러져 당시의 생활 정서까지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Q3. 이번 박물관·미술관 주간을 통해 관람객들이 〈동물가족〉을 보며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가져가길 바라시나요?

이번 기회를 통해 관람객들이 가족과 일상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떠올려보길 바랍니다. 덕소 화실 벽면에서 옮겨져 온 〈동물가족〉은 장욱진 화백의 생활과 작업의 흔적을 함께 담고 있으며, 작품에 그려진 동물들의 소박한 모습은 평범한 일상 속 따뜻한 정서를 전해줍니다. 관람객들이 작품을 통해 한 시대의 삶과 기억을 공감하며, 가까이에는 있었지만 쉽게 지나쳤던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 느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김명훈 학예사

□ 한국자연사박물관 소장품 〈학봉장군미라〉

- 박물관 소개 : 자연과 과학이 머무는 한국자연사박물관은 계룡산 자락에 자리한 국내 최대 규모 자연사박물관으로 故 이기석 박사의 뜻이 살아 숨 쉬는 과학문화 교육의 장입니다. 청운공룡부터 고래, 미라까지 자연의 경이로움을 품은 수천만 년의 시간과 생명의 흔적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학봉장군미라〉 조선시대 초기 ©한국자연사박물관

[전시와 연구, '최초'에서 '시작'으로]

학봉장군미라는 장례문화와 복식사, 의학, 인류학, 생태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 가치를 지닌 인류 문화유산입니다. 한국자연사박물관은 지난 20여 년간 학봉장군미라를 보존하고 연구해 온 것은 물론, 이를 대중 전시와 학술적 활용까지 연계해온 국내 유일의 사례로,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융합적 탐구를 실현해 왔습니다. 학봉장군미라는 '가장 오래된 미라', '조선시대 미라 중 최초로 전시된 사례'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동시에 내일의 연구를 여는 '시작점'으로서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최고(最古)의 미라]

2004년 대전시 목달동에서 조상 묘를 이장하던 중, 원형 보존 상태가 뛰어난 미라가 발견되었습니다. 자손들은 학술연구를 위한 기증을 결정했고, 박물관은 위치한 지역명 '학봉'과 그리고 함께 발견된 증손자 미라의 관직 '어모장군(정3품)'을 반영해 '학봉장군미라'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미라는 탄소연대 측정, 족보 기록, 치아 마모도 분석 등을 통해 1400년경 조선 초기 인물임이 확인되었고, 사망 당시 나이는 20대 초반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견된 40여 구의 미라 중 가장 오래된 시기의 미라입니다.

[구조가 민든 미라: 회곽묘의 비밀]

학봉장군미라는 한국의 다습한 기후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된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그 배경에는 조선시대 특유의 장례 방식인 회곽묘가 있었습니다. 숯, 삼물(석회·황토·조개가루), 목곽, 목관으로 구성된 4중 구조는 관 내부를 무산소 상태로 유지하며 시신의 부패를 막았습니다. 석회는 석회암이란 광물에서 얻는데 물과 만나면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열기를 발생하면서 단단하게 굳히게 됩니다. 특히 삼물(三物)이라 하여 석회에 황토, 조개가루, 모래 등을 섞어 강도를 높였는데 당시 석회는 아주 비쌌기 때문에 아무나 사용할 수 없는 재료로 무덤에 석회를 얼마나 사용하였는지를 통해 그 집안의 재력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의학적 접근 : 사망 원인과 조선의 생태환경]

학봉장군미라는 단순한 고고학적 유물을 넘어, 의료·자연과학의 영역에서도 귀중한 연구자료입니다. 박물관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과 협업하여 방사선, MRI, CT 촬영을 포함한 영상 진단을 실시하였고, 병리학적으로는 세계 최초로 미라에 대한 내시경 검사가 시행되었습니다. 기관지, 위장, 대장, 흉강, 복강 등 다양한 부위에 내시경을 적용해 정밀한 진단을 수행했고, 채취한 장기 일부는 현미경·전자현미경 관찰, 꽃가루 및 기생충 검사, 유전자 분석, 특수염색 등을 통해 분석되었습니다. 그 결과 미라는 1400년대 인물임이 확인되었고, 대장에서 고기와 식물 세포가 발견되어 육류와 채소를 고루 섭취한 사대부의 식생활이 드러났습니다. 기관지, 식도, 위에서 공통으로 발견된 애기부들 꽃가루는 생전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 치료를 위한 약재였으며, 간흡충과 편충은 당대 보건·위생 수준과 생태 환경을 유출할 수 있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유교 장례 절차와 효의 실천]

학봉장군의 장례 절차는 『국조오례의』에서 제시된 방식과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묘광을 파고 25~35cm에 이르는 두꺼운 숯과 회를 채운 뒤, 이중 목관 구조를 사용해 시신을 안치하였습니다. 또 대렴과 소렴, 보공을 거치는 전통 유교적 염습 절차에 따라 복식이 정제된 상태로 남아있었습니다. 이러한 장례 구조는 개인의 죽음 너머, 조상을 하늘처럼 섬기고자 했던 조선시대 유교 정신을 고스란히 반영합니다.

Q1. ‘만나다’ 프로그램에서 〈학봉장군미라〉를 선정하신 이유와, 이 유물이 가진 가장 중요한 학술적·역사적 가치는 무엇인가요?

〈학봉장군미라〉는 지난 2023년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지정된 본 관의 독보적인 소장 유물입니다. 한국의 기후 특성상 자연미라가 형성되는 사례가 매우 드문 상황에서, 본 유물은 ‘국내 최고(最古)의 미라’라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아닌 사립박물관에서 이처럼 엄청난 가치를 지닌 자료를 온전히 보존하고 지속해서 연구해 왔다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이번 공모 주제인 ‘최초, 그리고 시작’에 가장 부합하는 유물이라 판단하여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학봉장군미라〉는 약 600년 전 조선 초기(1400년대) 무관이었다는 점 자체로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닙니다. 특히 독특한 회곽묘 구조와 이중목관을 통해 당대의 엄격했던 장례문화와 유교적 질서를 생생하게 고증할 수 있으며, 미라와 함께 수습된 약 40여 점에 이르는 출토복식은 조선 전기 복식사 연구의 결정적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나아가 한국 자연미라의 독특한 형성 메커니즘을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체 불가능한 역사적·과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Q2. 관람객들이 〈학봉장군미라〉를 볼 때 특히 흥미롭게 살펴볼 만한 부분이나, 조선 초기 생활상을 보여주는 특징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2004년 발굴 당시, 두꺼운 회곽묘와 이중목관 덕분에 공기와 수분이 차단되어 그대로 보존된 극적인 순간 자체가 경이로운 요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온다습한 기후 환경에서 이처럼 완벽한 형태의 자연미라가 형성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이집트 미라 등과 달리, 현대 의학과 의 융합 연구를 통해 약 600년 전 조선 초기 인물의 삶을 생생하게 복원해 내어 당대의 실제 생활상을 가감 없이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게 살펴볼 부분입니다.

실제로 CT 영상 분석과 첨단 내시경 검사 결과, 대장 속 음식물 세포를 통해 조선 초기 사대부의 구체적인 식문화를 규명했습니다. 특히 위와 기관지에서 발견된 애기부들 꽃가루는 그가 생전에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제로 복용했다는 내과적 병력과 생활상까지 증명합니다. 또한 함께 출토된 명주와 무명 소재의 누비저고리, 바지 등은 당대의 정교한 의복 제작 기술을 보여주는 훌륭한 타임캡슐이라 할 수 있습니다.

Q3. 이번 박물관·미술관 주관을 통해 관람객들이 〈학봉장군미라〉를 보며 어떤 경험이나 생각을 가져가길 바라시나요?

제일 먼저, 이번 박물관·미술관 주관을 통해 사립박물관이 지닌 무한한 교육적 확장성을 경험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작년에 본 사업을 계기로 조성된 홍보관이 단순 전시를 넘어 ‘학습과 기록’의 실질적인 교육 공간으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단순한 유물 관람을 넘어, 관람객이 직접 ‘600년을 걷는 시간 여행자’가 되는 역동적인 경험이 되길 희망합니다. 미라에 얽힌 비밀을 풀기 위해 박물관 곳곳의 단서를 추적하고 정답을 맞춰 스탬프를 획득하는 미션 수행형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들은 역사와 과학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꼬마 인류학자’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계기로 자연과학과 인문학을 동시에 아우르는 융합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과거의 인물과 생생하게 소통하며 박물관이 살아있는 탐험과 기록의 공간임을 온몸으로 체감하길 기대합니다.

한국자연사박물관 송안나 학예팀장

□ 메인 포스터 2종



□ 주요 프로그램 포스터 3종

